

“직장 내 괴롭힘 엄중 처벌할 것”

익산시, 철저한 조사 통해 사실 파악 나서... 재발 방지대책 고심

여성 공무원 모임 · 노동조합, 집행부에 조속한 진상 규명 촉구

익산시가 최근 내부에서 불거진 성 비위 파문과 관련, 강경 대응에 나선다

익산시 여성 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와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정현을 익산시장을 만나 조직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앞서 익산시 행정 시스템 내부 게시판에는 한 공무원이 신규 여직원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성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한창훈 익산시 노조위원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된 여러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창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의 조속한 조사를 단호하게 요구하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목련회 임원진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고충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이번 일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들 단체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진상 규명에 착수하고,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강력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 비위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장으로서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유감스럽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청년들은 군산지역 청년의 다양한 고민(진로 스트레스, 심리적 우울감, 좌절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군산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5일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들-전북마음건강센터 협약

군산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 삶의 질 향상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군산시 청년들(청년센터)은 군산지역 청년의 다양한 고민(진로 스트레스, 심리적 우울감, 좌절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군산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5일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청년들(센터장 오원환)은 청년·창업 복합지원센터로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년센터와 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개발과 자존감 고취,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센터장 이상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견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마음클리닉(정신건강 상담, 마음건강주치의 상담)과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치료, 여가·문화,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며, 대상자는 2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오원환 청년들 센터장은 “지역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도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이현형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협약으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해 적절하게 조기 개입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치료, 여가·문화,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며, 대상자는 2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오원환 청년들 센터장은 “지역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도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이현형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협약으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해 적절하게 조기 개입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운영

익산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본·필수·맞춤형 3개 분야 38개 서비스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180가구, 239명이다. 기본 분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 현황조사 등 사례관리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필수 분야로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예방접종 △아동 권리를 비롯한 6대 교육 △임신부 지원 △부모 교육 등 13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과 권리 증진에 힘쓴다.

아동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해 △말반찬 언어 및 인지 치료 △학습지 △예체능 교육 △가족 힐링캠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아동 영양제 지원 △보건교육 및 위생 속옷 지원 △과학 교실 △명절 지원 △맞춤형 가족 지원 등 5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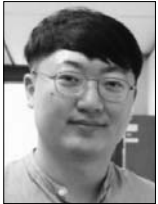
시는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드림스타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 청년에게 건네는 응원

익산시, 20일 청년시청서 오후 2~5시 취업박람회 개최

4개 기업 1:1 현장 면접 · 김선태 주무관 토크콘서트

익산시가 취업과 진로 준비에 지친 청년들을 응원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한다



김선태 주무관

시는 오는 20일 오후 2~5시까지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4개 기업의 1:1 현장 면접과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초청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는 ‘충주시 홍보맨이 익산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란 주제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김선태 주무관은 기존 공무원의 이미

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언더 블럭 등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강사로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다산소프트와 한솜아재목을 포함한 4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1:1 현장면접도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시장을 통해 나

에게 맞는 향기를 찾아보고 내만의 특별한 아로마 오일을 만들어보는 감정 오일 테라피, 청년 버스킹 공연, 퍼스널 컬러진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9일까지 청년일자리센터(063-918-6088~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2시 청년시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군산시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조사기간(2023.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군산시 관내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통계청 주관하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나 대상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경우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사업체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오는 9월에 잠정 결과를 공표한 후, 12월에 확정해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국가 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가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한다”며 “사업체 조사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업체 조사와 관련해 질의나 문의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군산시 통계조사실(063-454-7932~8) 또는 통계청 콜센터(080-2024-00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훈련기관 모집

군산시가 청·장년층의 취업 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9일까지 2024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실시할 훈련 기관을 모집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청·장년 실업자들을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우수기술인력으로 양성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훈련기관의 자격조건은 군산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5개 과정 내외로 용접, 건설기계, 전기설비, 전산사무회계 등 인력수요가 많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시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 과정별 20명 정도의 교육생을 모집·선발, 4~6개월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학교 참여시민 26일까지 모집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학교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모집한다. 올해 3회제를 맞이하는 시간여행축제학교는 군산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연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의 축제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주민 축제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교육은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1회씩 총 7회가 진행되며, 지역 축제 총감독, 축제 관련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축제에 대한 기본 지식, 문화와 축제, 축제 기획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생들 간 아이디어를 토론해 보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축제 일반과정(3주)과 심화과정(7주)으로 구성된다.

일반과정은 축제의 기본적 이해 및 교양 수준의 축제 관련 내용을 수강, 수료자에게는 일반과정 수료증과 함께 시간여행축제 관련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